

# 현대오일뱅크, 고도화 통해 수익 확대

## 46주년 기념식, 2011년 상반기 상업화 ... 영업이익 4000억원으로 증가

현대오일뱅크는 고도화 설비 가동으로 2011년 영업이익이 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오일뱅크는 6월30일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임직원과 협력기업 대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서영태 현대오일뱅크 사장은 “46년을 넘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구성원의 땀과 열정으로 유지해온 창조와 혁신의 DNA였다”며 “2011년 상반기 고도화 설비를 상업화 하면 영업이익이 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오일뱅크는 30년 근속 4명을 포함해 장기 근속자 288명에게 포상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창립기념일을 한 달 앞두고 시작한 30일간의 사랑나눔기 봉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임직원 590명이 모두 2899시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30>